소통 강화·역동 불교…'K-불교' 구축 나선다

키워드로 보는 2025년 조계종 종책과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025년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발표된 2025년 조계종 종책과제에서는 △불교의 사회적 소통 강화 △조직개편을 통한 역동적 불교 구현 △한국불교 문화적 자긍심 고취 △젊고 힘찬 문화 불교 구현 △전통문화관련 국가제도 개선 등이 주요 핵심 과제로 소개됐다.

불교의 사회적 소통 강화

국민들의 마음 평안과 행복을 위해 지난해 조계종단이 제안한 선명상은 올해 국민 운동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제안한 '우선 멈춤' '5초 명상' 등은 일상에서 많은 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해 보급된다.

세계적 명상가들과 효과적인 명상 방법을 소개하는 '국제선명상대회'도 4월 시작된다. 도심과 전국 주요 사찰에서 선명상프로그램과 선명상 템플스테이를 통해 선명상을 체험할 수 잇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계종은 현재 서울 도심에 중앙선명상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건립되는 중앙선명상센터는 도심 속에서 안정적인 수행 환경을 조성해 선명상을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선명상 보급의 중추가 될 전문 지도인력을 양성한다. 이들은 선명상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화쟁과 화합이라는 전통의 지혜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고통의 현장에도 적극 나선다.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봉사자들을 육성하고, 연간 10억원 이상의 활동 기금을 조성해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공익적 역할을 위해 사찰림을 보전, 활용하고 사찰림 연구소를 종단 공식 기구로 편재해 본격적인 연구와 공익적 사업 부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직개편으로 역동적 불교 구현

조계종은 지난해 30년 만에 조직개편을 결정하고 올해 4월부터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통합을 시행한다. 이는 3원으로 분산돼 역동성이 떨어지는 조직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조직 통합으로 유기적이고 신속한 행정이 시행됨에 따라 신도들의 신심을 증장하고 승가교육체계를 현대화해 역동적인 불교를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직개편을 통해 앞으로 전법은 총무원장이 직접 챙긴다.

교육의 틀에도 현대적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행자 교육 시스템부터 기본교육까지의 프로그램을 혁신하는 방안을 준비 중으로,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어나갈 선지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승가교육의 수행정신을 계승해 현대적 교육 시스템으로 변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도입해 산중에서도 양질의 교학을 학습하며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월 21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내영 기자

불교의 사회적 소통 강화
- 선명상 프로그램 활성화
- 조계종 중앙선명상센터 건립
- 불교의 사회적 역할 및 소통 강화

조직개편으로 역동적 불교 구현
- 종단 포교, 신도단체 조직 변화 및 신행단체 활성화
- 계층 포교 연계 강화
- 청년대학생 출가 장려
- 전통 기반 현대적 승가교육 체계 개선
- 승려복지 강화로 승가공동체 안정화

한국불교 문화적 자긍심 고취
-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
- 한국불교세계화
- 불교문화유산보전센터 개관 및 민간 보존처리 기반 육성

젊고 힘찬 문화 불교 구현
- 젊은 불교, 힘한 불교를 위한 '불교의 달' 추진
- 불교문화대전 활성화로 불교 문화 구현
- 템플스테이 지역 연계 활성화
- 불교 문화 영상, 음악 등 콘텐츠 발굴 및 제작

한국불교 문화적 자긍심 고취

조계종은 4~5월을 '불교의 달' '마음 평화의 달'로 만들어 종단 역량 결집의 기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힘한 청년들과 함께하는 불교박람회, 마음의 평안을 찾는 국제선명상대회,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연등회를 연달아 배치해 세대와 성별을 떠나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고 전통의 지혜와 최첨단 문명이 어우러지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선보이겠다는 게 조계종의 포부다.

진우 스님 취임과 함께 천명했던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도 계속 진행된다. 올 상반기 국가유산청과 경주시의 입불 모의실험이 완료될 예정이다. 실험이 완료되면 올해는 마애부처님을 여법하게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최종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젊고 힘찬 문화 불교 구현

많은 공감을 받고 있는 '젊은 불교' '힘한 불교'의 흐름을 이어 나가면서 현대인들이 주목하는 뉴미디어를 통한 포교를 더욱 강화하며 새롭게 신설된 '미디어 홍보실'을 통해 한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포용성을 널리 알리고, 지속적으로 젊은층과 직접 소통하면서 포교의 방편을 다양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젊고 힘찬 불교 문화는 10월에 개최되는 '불교문화대전'을 통해 집대성되고 새로운 방향을 열어갈 것으로 보인다.

비구니회 수행결사…"1년 정진 비결은 '도반'"

비구니 · 우바이 수행 공동체 "일상 전체 수행 되는 경험"

청정한 수행 가풍 진작을 위해 출범한 비구니스님과 우바이들의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가 19차례의 정진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1월 20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만불전에서 '2024년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 1년 회향법회'을 봉행했다. '청정승가공동체'는 전국비구니회가 2024년 3월 18일, 4년 수행을 목표로 출범한 여성불자 수행공동체다. 비구니스님과 여성 재가불자들이 사찰에서 함께 수행하는 것은 물론, 대중소임 또는 가정 등 각자의 처소에서도 수행정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광용 스님은 회향사에서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1년간 함께 수행하니 '부처님 당시의 수행도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부처님께서도 이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뻐하셨을 것이다. 2025년의 수행도 잘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1년간 지도법사를 맡은 범라 스님은 "'숩따분다'는 전생의 불선업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지은 선업이 있기에 도를 이룰 수 있었다"면서 "도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불선업은 멀리하고 늘 선업을 가까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소모임 수행은 5~6명이 조를 이뤄 수행 경험담과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결사 대중은 이번을 계기로 도반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입을 모았다. 혜욱 스님(춘천 봉덕사)은 "재가불자들이 열심히 수행하는 모습에 원동력을 얻었다. 함께하는 수행이 정말 강력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부협(78) 불자도 "혼자 수행하다가 여러 도반과 수행하니, '알아차림'이 좀 더 강해지는 것 같다"며 "함께 수행하는 스님과 도반들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수행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는 오는 3월 17일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소장 서광스님을 지도법사로 2025년 수행결사 입재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02-3411-8103

김민재 기자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진우 스님 예방


설을 맞아 현대불교신문 임직원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환담을 나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현대불교신문 임직원들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설을 앞두고 진행된 이날 예방에서 진우 스님은 "다양한 기획기사로 신행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고 덕담하고 "앞으로도 불교 언론을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현대불교신문 지면에 AI를 도입하고 있는 것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스님은 "앞으로도 AI를 적극 활용한다면 더욱 풍성한 지면이 될 것"이라며 "현대불교신문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격려했다.

한명우 대표이사는 "지난해 창간 30주년을 맞아 재도약을 선언한 만큼, 지속가능한 고품질 뉴스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3월 26일 개회

안건 접수 마감 3월 19일까지 세입출 결산 · 호계원장 선출도

불기2568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조계종 호계원장 선출 등을 다룰 제233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3월 26일 오전 10시 개회한다. 회기는 3월 30일까지 5일간이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기2569(2025)년도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종책모임 회장단 제9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33회 중앙종회 정기회 일정을 논의했다.

안건접수는 3월 19일까지며 종책질의는 3월 21일 마감한다.

임은호 기자

대원아카데미 2025학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

교육부 평가인정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시설

대원아카데미(출석 교육)

◎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에 필요한 학점 취득 가능
학습과목
인지심리학(심리학 전공/3학점/목요일)
정신분석학(심리학 전공/3학점/금요일)
주 1일(목 · 금) 14:30~17:30, 15주
신청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수강료: 100,000원(과목당)

학점은행제 과목과 평생교육과정 동시 수강 가능
○인지심리학(학점)+명상지도사(평생교육과정) 수강료: 30만원
○정신분석학(학점)+심리상담사(평생교육과정) 수강료: 30만원

◎ 평생교육과정

모집과정
대학원 과정 00명
명상지도사 과정 00명
심리상담사 과정 00명
2년 4학기(학기당 4과목)
과정별 주 2일 15주 출석 수업
(화 · 수) 13:00~17:00
(목 · 금) 13:00~17:30
수강료: 300,000원(학기당)

○ **공통과목:** 진화인간학, 불교란 무엇인가, 뇌 과학과 불교, 죽음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명상과 (생명)과학, 서양에서 보는 불교, 명상심리학 등

○ **전공과목:** 유식학, 명상 세미나와 실습 I , 불교명상학, 인지심리학, 정신분석학, 자아초월과 불교심리치료, 명상과 치유, 불교심리학,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명상의 이해와 실습, 위빠사나 이론과 실습, 마음챙김의 이론과 실습, 상담심리학, 사마타 이론과 실제, 불교상담의 이론과 실습 등

디지털대원아카데미(온라인 교육)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
모집과정
대학원 과정 00명
명상지도사 과정 00명
심리상담사 과정 00명
2년 4학기(학기당 4과목)
과정별 주 2일 15주 온라인 수강
(화 · 수) 13:00 업로드
(목 · 금) 13:00 업로드
수강료: 200,000원(학기당)

○ **교수진**
김동한 서울중독심리연구소 상담사, 명상심리학 박사
김재권 능인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불교학 박사
문진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상담학과 교수, 동서양심리학 박사
성소은 지식협동조합 '경계너머 아하!' 대표, 사회학 박사 수료
이승욱 '닛부타의 숲 정신분석클리닉' 대표, 심리분석학 박사
이충현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학술연구 교수, 불교상담학 박사
이한구 경희대학교 석좌교수, 철학 박사
최일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심리학 박사

○ **특전 및 혜택**
성적 최우수 장학금: 수강료 100% 지급
성적 우수 장학금: 수강료 50% 지급
스님 등록 시, 본인 수강료 50% 할인
가족동반 등록 시, 1인 수강료 50% 할인
수료자 재등록 시, 수강료 50% 할인
2개 과정 동시등록 시, 1개 과정 50% 할인
민간자격(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취득자격 부여

○ **접수 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대원아카데미: www.daewonacademy.org
디지털대원아카데미: www.digitaldaewon.org
접수 기간
학점은행제: 2025년 3월 6일(목)까지
평생교육과정: 2025년 3월 4일(화)까지
디지털대원아카데미: 2025년 3월 11일(화)까지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20 다보빌딩(BBS불교방송) 3층(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도보 50m)
문의: (02) 707-1072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 · 디지털대원아카데미 www.kbpf.org